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표준화에 맞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ESG 공시 내용은 정부, 투자자, 고객 등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사결정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Samjong INSIGHT 86호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성장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ESG 정보공시

ESG 정보공시의 글로벌 표준화·의무화로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며, ESG 공시를 위한 준비가 필수임





 \prod

- 1)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2)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3)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4)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ESG 정보공시 방법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ESG 정보공시를 요구함

	SEC	ISSB	EFRAG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되는 항목이 있나요?	1)	(상호 참조)	8	 ✓ SEC는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에 대해, ■ 재무제표상 주석에 공시 요구 ■ 외부감사 및 SOX(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
연차 보고서에 공시 되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	(2)	(공시 위치 자율)	•	✔ ISSB가 한국에서 의무화 전에도 ■ 글로벌 ESG 우수 기업들은 ISSB 공시기준 선도적으로 채택 예상 ■ 투자자 공시 요구 가속화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공시되어야 하나요?	•	3)	•	 재무적 영향, 지출 지표 및 재무적 추정치와 가정을 주석 공시 연차 보고서 내 별도 영역에 공시 혹은 MD&A(경영진단의견서)와 같은 영역 참조로 공시 공시 시점 관련 논의 진행 중

Source: 삼정KPMG